

협회행사 보고 ① ; 2002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우리 협회는 6월 11일(화) 오후 2시 COEX 세미나실에서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정부의 도서관 발전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전문인의 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병채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사무관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이희수 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의 “학교 및 대학도서관 진흥 방향”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부영 사무관(경기도청 문화정책과), 김현아 부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강구식 관장(충북 증평도서관), 김중은 과장(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학술정보과), 정경희 강사(한성대학교), 백원근 과장(한국출판연구소)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유병채 사무관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 첫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배경, 둘째, 도서관 및 도서관 정책의 현주소, 셋째,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추진배경은 먼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중요성 증대를 들었다. 또한 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도서관 육성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서관 및 도서관 정책의 현주소는, 1)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도서관 관련 부처가 다양하나 이를 통합·조정할 법·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으로 효과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과 집행이 어렵다. 2) 공공, 대학, 학교, 전문,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종별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3) 도서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설수의 부족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다. 4) 만성적인 인력 및 예산 부족, 5)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욕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학습기회 제공 등과 같은 기능확대를 추진하다보니 일부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을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정보관, 문화정보센터 등으로 전환하여 도서관 기능의 확대에 따른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점이다. 6) 열람봉사 위주의 도서관 서비스와 협력사업이 미흡하다. 7) 도서관 정보인프라의 확산 및 이용자서비스가 미흡하다. 8) 사서직 관장의 보임이나 사서인력 충원기준, 자료폐기 기준 등은 도서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거나 한계를 들어낸다는 점등이 법, 제도와 현실이 불일치 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안)에서는, 1) 종합적인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UNESCO/IFLA의 일반적인 도서관 가이드라인과 함께 국내 실정에 맞게 도서관 시설·인력·서비스 등에 대한 권장안 및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며, 일정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전환하여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 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OECD 주요 국가 수준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2011년까지 6만명당 1관 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지속 확충하고, 학교도서관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고 하였다. 인력분야에서는 현재 도서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서직원 배치기준을 봉사대상 인구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서직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고 하였다. 자료 역시 2011년까지 현재의 2배인 국민 1인당 1.0권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3)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협력망을 활성화하고, 특수·소외계층에 대한 도

서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외에 독서장애인으로 정보서비스의 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 군인·재소자 등 특수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4) 도서관의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하기 위해 미래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모형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5)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문헌수집, 연구·개발, 표준화 등 핵심 기능 위주로 조직 및 업무를 개편하여 전문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6) 도서관 정보화를 위하여 온라인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에서 구축한 전자출판물의 구입을 확대하며, 공공도서관이 지역정보화의 거점기관으로써 지역 내 향토자료 및 지방행정간행물, 특화자료의 DB화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고유성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7) 법, 제도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상 등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며,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 민간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메세나 운동과 연계하여 '1기업 1도서관' 결연 운동을 전개하여 민간영역의 도서관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공립공공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 및 문고 등의 비사서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립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9) 마지막으로 독서진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수 연구위원은 '학교 및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 서두에서 학교도서

관은 현재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입자 없는 상태로 시대 변화에 둔감한 '나홀로' 도서 창고라고 지적하였다. 학교도서관의 절대적 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서의 부족, 신규도서 구입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진흥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1)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인구통계 구조의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자원정보센터, 평생학습의 장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재조정, 2)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시작과 끝은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활용률 제고에 있으므로 기반조성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3주체인 교육정책 당국자, 학부모, 교사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문화 진흥부터 추진, 3) 공교육 수혜의 형평성 및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교증설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서관 미설치교를 해소하며, 이와 함께 교육시설비 기능의 복합화, 지자체와의 연계, 도서관 기증 운동을 추진, 4)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정보센터로서 도서관중심학습(LBL)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개정에 부응하는 교수·학습자료 및 기본참고도서 확보, 민주도 도서기증 운동 전개, e-book 공동 이용 시스템 병행을 추진, 5)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성패는 전문 사서 확보 및 담당자의 문화에 달려 있으므로 규모가 큰 학교부터 장기적, 단계적으로 전문사서 및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연수 등을 통한 담당자 전문화를 계속적으로 추구, 6) 도서관을 자기충족형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비용 저활용 체제에서 저비용 고효용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간,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별 자족형(Stand alone) 도서관에서 연계형 (Networked Library System)도

서관으로 전환, 7)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학교도서관 행정지원체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촉진, 학교도서관 전담 연구개발지원 기능 강화 등을 추진, 8)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은 교수 및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촉진·지원하는 첨단학술정보센터로 육성하며, 발전적으로는 산·학·연 촉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의 전담 기능 수행을 위해 국내·외 학술정보 콘텐츠 확충, 대학도서관 협력망의 고도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및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먼저 이부영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교육지원담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 및 제안을 하였다. 1)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구심체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청의 일원화 필요, 2)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에 충실, 3)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안 마련, 4) 각 재벌 기업이 '기업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에 투자하여 기부할 수 있는 운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방안 강구를 들었다.

다음 토론자인 김현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위원은 각 자치구별 공공도서관을 돌아보며 느낀점과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김부위원은 예산이 가장 핵심사항이라면서 자치구에서 도서관건립을 계획할 경우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인 도서관 건립이 불가능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지어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도서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핵심은 접근성인데 현재의 도서관은 입지가 좋지 않으며 사업의 추진성도 미

흡하다고 하였다. 또한 운영내용에 있어 도서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해당 실무자와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구나 해당 담당 부서는 안정된 전문직 사서의 신분보장을 우선으로 하여 직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구식 증평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10개를 짓기보다는 쓸만한 도서관 1개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강조하였다. 또한 봉사대상인구기준 뿐만 아니라 시설규모와 비치자료의 양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정해 필요한 사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료는 국민 1인당 연간 장서확충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자료 확보 예산액이 미달을 추월할 수 있는 목표연도를 설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법 제도적 지원 기반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종은 한국교원대학교도서관 과장은 정부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공도서관을 행자부로 옮겨야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정책을 학교와 대학을 통해서 실현해야지 공공도서관을 통한 실현은 타부서에 넘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는 특성화된 주제서비스를 해야 한다면서 중앙도서관 산하에 많은 전문분관을 두고 주제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경희 한성대학교 강사는 도서관이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작권문제의 심각성과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지적하였

는데 특히 민간위탁은 정보격차를 확대시켜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을 차단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도서관의 존재감이 부재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정책 대안들이 기존처럼 사문화 되지 않고 실행되는 '행동지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복지센터의 위상으로 거듭나야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 도서관 수서 자료 중 디지털 자료, 특히 온라인 전자책의 인증, 납본, DOI 등과의 연계 및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육성하도록 연차계획 수립 추진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반드시 도서실

이나 도서관을 갖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자리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정책 결정을 끌어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서발행을 지원하는 출판정책과 연계된 도서관 정책만이 진정한 도서관 선진국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자리가 일회적 행사가 아닌 정례화 된 세미나 등을 통해 출판계와 도서관계, 그리고 현장과 정책이 만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면 발표를 마쳤다. 지정토론 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의 사서직 관장 문제나 도서관 정책에서 전문도서관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비판적 질문도 나왔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책 수립 요구도 있었다.

알

림

사무국 “임시휴무”

국립중앙도서관이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로 전력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전등·전열·전화·화장실·식당 및 컴퓨터 등의 사용불가로 본관동에 위치한 우리협회 사무국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다음과 같이 “임시휴무”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휴무기간 : - 7월 13일(토)부터 7월 16일(화)까지 4일간
- 다만, 상기 기간 중 14일은 공휴일이므로 실제 임시휴무 일자는 토요일(13일) 포함, 15, 16일의 3일간임.

“임시휴무” 기간동안 협회 사무국에 응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회원께서는 미리 업무처리하시기 바라오며, “임시휴무” 기간중 긴급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아래의 직원비상연락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용 휴대전화】

- 총무부장(이현주) : 011-229-4868
- 기획부장(이용훈) : 017-238-0858
- 팀 장(유태형) : 016-383-3646(회원 업무)
- 팀 장(박경아) : 019-214-5870(IFLA2002 글래스고 대회 업무)
- 팀 장(신재은) : 011-9788-1217(사서자격증 및 발간자료 업무)

협회행사 보고 ②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제4차 도서관장 회의

5월 23일(목)부터 5월 24일(금)까지 제주도 서귀포 칼 호텔에서 “지식경영 시대에서의 대학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4차 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태승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도서관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대학의 전통적 기능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 기능을 언급하고, 대학도서관의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규정, 국가와 지역사회, 교내의 관련부처, 대학의 구성원이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대학도서관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대학도서관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연 평균 자료 구입비는 미국 대학의 7%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도서관 : 한국 = 97억원 : 7억원이라고 예를 들었으며, 국내 1위 대학과 유사한 규모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비교하면 장서수는 23%, 도서구입비는 21% 수준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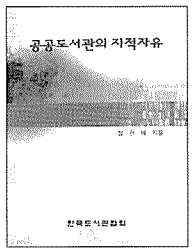

학술지의 경우는 더욱 차이가 심해 보유 학술지는 12%, 학술지 구입비는 32% 수준이며, 국

내 대학전체가 구독하는 외국 학술지는 총 발행되는 외국 학술지의 6%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대학도서관 인원 부문에 대해서는 1995년 대비 직원수는 1%증가, 자격증 소지자는 7%감소 하였으며, 국내 대학도서관 간 학술정보 공유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도서관의 위상, 도서관 명칭 변경의 문제, 벤더와의 관계,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등이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장의 역할을 관외와 관내로 나누어 보면, 관외에서는, 1) 명목상 관장(의전상 도서관의 대표자), 연락자(대학경영자 및 교수와의 접촉·유지), 3) 모니터(외부정보의 입수자), 4) 대변인(내부정보의 외부 배포·홍보), 협상자(자금조달을 위한 접촉과 교섭)이다. 관내에서는, 1) 지도자(내부인력의 관리와 감독), 2) 배포자(관내정보의 전달과 공유), 3) 흥행주(신규시스템/프로그램의 개발), 4) 혼란의 조정자(관내의 갈등, 위기, 돌발상황의 수습과 관리), 5) 자원배정가(자금, 시간, 인력, 장비 등의 배분)라고 설명하였다.

| | | | |
|--|--|---|---|
| <h3>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h3>  <p>신국판/반양장/176쪽 ISBN 89-7678-058-2 정가 8,000원 회원보급가 6,400원</p> | <h3>정 현대 지음</h3>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지적자유' 연원과 기본권적 기반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이용자 지적자유 | <h3>한국공공도서관 운동사</h3>  <p>신국판/반양장/302쪽 ISBN 89-7678-057-4 정가 12,000원 회원보급가 9,600원</p> | <h3>이연옥 지음</h3> <p>목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 새로운 시도 그리고 좌절 ● 운동의 기초 다지기과 반복적 외침 ● 운동의 확대와 성과의 가시화 ● 새로운 위기와 대응 |
| <p>문의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p> | | | |

협회행사 보고 ③ ;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제7회 정기총회 및 사서직무 교육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5월 2일(목)부터 5월 4일(토)까지 강원도 속초에 있는 한화콘도 별관(대청봉1,2)에서 제7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및 사서직무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이루어진 사서직무교육은 총 4개의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먼저 김포대학 최선희 사서는 '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을 기초로 한 이용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며 연구의 산실이라면 대학도서관은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실재적인 존재가치가 자주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논문들에 의하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나누는데, 내적요인에는 최신 자료의 보유, 최신시설, 장서의 수, 사서의 친절, 개가제 실시 등의 요인을 말하며, 외적요인으로는 대학에 대한 긍지,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 본인의 전공수행 능력, 교과 과정에 대한 만족, 장래 전망에 대한 기대감,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 7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도서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대학의 여러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 도서관 이용자 연구가 곧 도서관 내부의 자기 인식이라는 출발선에서 접근하여 일반열람실,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인터넷 카페, 영상(시청각)자료실, 단행본 자료실 등의 출입인원과 대출인원

의 시간별, 요일별, 월 별, 학기별로 주제별, 분야별, 형태별, 학년별, 학과별 등 다양한 이용통계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이용자 분석을 통한 도서관의 대 이용자 봉사과 이용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주제 발표는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김환민 사서의 DDS 사용자 시스템과 동 도서관 이미영 사서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관리자 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인 교육의 시간으로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이 1993년 이후 출판된 해외 학술저널 및 프로시딩 3만 5천종에 수록된 약 2천만건의 논문에 대하여 논문정보의 검색으로부터 원문입수까지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학술저널 포털로서 7000여종에 수록된 학술전자저널의 One-Click 원문열람과 국내 200여 협력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저널의 온라인 원문복사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제3주제 발표는 서일대학 송근주 사서가 '상호대차 참고봉사 - 서일대학 도서관'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인터넷과 온라인시대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실시해야 할 상호대차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절차, 비용정산방식, 상호대차 협정체결과 정 소개 및 이용자 교육에 관한 실무와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제4주제 발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권지연씨의 'L2L(Library to Library)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교육'이 있었다. 서비스 추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현황과 서비스 현황, 해외 상호대차 서비스 현황은 물론 일반 이용자를 위한 웹 서비스 안내와 대학도서관 사서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였다.

협회행사 보고 ④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제35회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5월 17일(금)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워크숍은 '의학도서관 QI(Quality Improvemen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의학도서관에서의 QI에 관한 개념적 고찰', '잡지 이용통계를 바탕으로 한 QI의 실례' 등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의학도서관에서의 QI에 관한 개념적 고찰'의 주제로 발표한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김남진은 QI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QI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적절한 자원배치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질(Quality)의 구성요소는 효과, 효율, 적절성, 과학적-기술적 질을 말한다고 하면서, QI의 활동단계는, 1) 문제점을 도출하고 과제를 선정, 2) 추진팀을 구성하여 팀 회의, 3) 추진 항목이나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 계획 수립, 4) 도구개발이나 조사방법을 결정하여 조사 및 현상 파악, 5) 항목별, 요인별 원인을 분석, 6) 수행능력이나 과거 데이터를 조사하여 목표 설정, 7)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수립, 8) 개선안을 선택하고 정리하여 대책 실시, 9) 데이터를 집계하여 효과 파악 및 문제점 분석, 10) 내용작성이나 표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반영, 11) 지속적인 사후관리, 12) 자기 진단 및 취약점 및 보완사항을 정리하여 반성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및 한국의료QA학회 및 일부 의학도서관에서 실험적인 QI활동을 전개하

고 있으며, 미국, 호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 실시 중이라고 말하였다.

'잡지 이용통계를 바탕으로 한 QI의 실례'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 의학도서관 양승호씨는 학술지 구독가가 상승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생기면서 QI가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린트저널, 전자저널, 상호대차에 대한 종합적인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이용빈도 데이터 수집으로 수서실무에 반영하여 자관의 자료 이용률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용빈도 조사시 전제조건은 울산대학교 의학도서관 1개 기관자체조사로 데이터가 국한되었다는 점, 도서관을 통하지 않은 이용이나 접속은 배제되었다는 점, 프린트저널의 경우 제본, 날권 모두 한 권으로 계산 처리하였다는 점이 한계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001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프린트저널의 경우 구독저널 1,002종, 제본잡지, 38,800권, 전자저널 약 3,500종, 상호대차는 타관 신청분을 포함하였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총 이용횟수는 102,091건이며, 일 평균 이용횟수는 425.3(8개월 기준)이고, 이용빈도는 전자저널이 51%, 프린트가 43%, 상호대차가 6%였다고 말하였다.

조사결과 전자저널 이용증가로 중요도가 부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술지 구독형태 결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지속적 이용빈도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며, 이용자 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수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